



8일 오후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2007 프로야구 LG와 KIA의 경기에서 7회초 1사 주자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KIA 장성호가 2점 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성호 2게임 연속 투런포

‘특급 좌완’ 전병두 5.1이닝 1실점 쾌투

KIA, 개막 3연전 2승1패...통산 1,600승



‘특급좌완’ 전병두(23)가 올해 정규 시즌 첫 등판에서 빼어난 투구로 감격적인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KIA 타

이거즈는 통산 1,600승을 달성했다. 10년 연속 3할타율에 도전중인 ‘스나이퍼’ 장성호(30·이상 KIA)는 이를 연속 투런포를 작렬하며 올 시즌 대 활약을 예고했다.

전병두는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07 삼성 PAVV 프로야구 LG와 원정경기 3차전에서 선발 등판해 5.1이닝 동안 탈삼진 1개를 곁들이며 4피안타, 1볼넷, 1자책점으로 막고 팀의 5-1 승리를 이끌었다. KIA는 이날 승리로 개막전 1패 뒤 2연승을 이어갔

다. 투구수 92개를 기록한 전병두는 최고 구속 147km의 위력적인 직구를 앞세워 칼날같은 제구력과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LG 타선을 잡았다.

전병두는 1회말 2사 후 LG 박용택에게 중전안타를 내줬지만, 후속타자 발데스를 내야방물로 처리한 뒤 2회에도 1안타만 허용한 채 깔끔히 마무리했다.

이어 3회와 4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전병두는 5회들어 완벽한 위기관리 능력도 선보였다.

5회 선두타자 최길성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한 전병두는 1사 2루에서 조인성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했으나, 대타 최동수와 1번타자 권용관을 각각 중견수 플라

이와 우익수 뜰공으로 잡아낸 뒤 6회 1사 1, 2루서 신용운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타선에선 장성호의 활약이 빛났다.

전날 LG 선발 하리칼라에게 우월 2점 홈런을 뽑아낸 장성호는 이날도 2-1로 앞선 7회초 1사 3루 상황에서 상대 바뀐 투수 김재현의 105km짜리 직구를 잡아 던져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비거리 105m)를 터트렸다.

장성호는 1회에도 2사 후 우전안타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간 뒤 서튼의 볼넷, 이재주, 이현곤의 1타점 좌전 적시타를 유도해 선취 2점을 얻어내는 밑거름이 됐다.

이 밖에 삼성은 대구구장에서 두산전에 7-4로 승리, 2승 1패를 기록했고, 대전구장에서는 SK가 한화에 4-3으로 힘겨운 역전승을 거둬 5년만에 복귀한 김성근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했다.

한편 KIA는 지난 6일 LG와의 개막전에서 0-1로 패한 뒤 7일 2차전에선 장성호의 2점 홈런 등 장단 9개의 안타를 몰아쳐 9-2로 대승했다.

/잠실=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병규 9경기 연속타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폐기 2타점 적시타 포함, 사흘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하며 연속 안타행진을 ‘9’까지 늘렸다.

이병규는 8일 나고야 돐에서 계속된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홈경기에서 중견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2안타 2타점의 맹타로 6-2 팀 승리를 도왔다.

1-0으로 앞선 2회 첫 타석에서 이병규는 상대 좌완선발 투수 구도 기미야스와 6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바깥쪽 높은 직구(138km)를 밀어쳐 3루수 쪽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지난달 30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개막전부터 9경기 연속 안타로 이날까지 때린 14안타 중 발로 만든 세번째 내야

안타였다.

3회 1사 2루와 5회 1사 1,2루의 타점 찬스에서 각각 유격수 땅볼과 3루 땅볼에 그친 이병규는 3-0으로 앞선 7회 다시 한 번 폭발했다.

1사 만루 추가득점 기회에서 이병규는 좌투수 요시미 유지의 2구 몸쪽 직구(136km)를 무리없이 잡아 던져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터뜨려 췌기를 박았다. 타점은 6일 요코하마전 이후 2경기 만이다.

시즌 타율은 0.389(36타수14안타)로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시즌 타점은 다섯 개째를 마크했다. 득점권 타율은 0.364(11타수4안타)로 5번 타자로는 손색 없는 성적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임창용 통산 2번째 100승 150세이브

오랜 부상에 신음했던 특급 사이드암 임창용(31·삼성)이 돌아왔다.

임창용은 8일 대구구장에서 계속된 2007 프로야구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투수로 등판, 5이닝동안 2점홈런을 포함해 4안타와 볼넷 4개를 허용했지만 삼진 5개를 곁들이며 3실점으로 막아 7-4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최고 시속 149km에 이르는 빠른 볼과 커브, 체인지업을 적절히 섞어가며 전성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회복한 임창용은 2005년 6월 5일 광주 KIA전 이후 1년10개월만에 선발승을 올려 개인통산 17번째로 100승 고지에 오르게 됐다.

또한 개인통산 100승(59패)168세이브를 달성한 임창용은 김용수(126승 227세이브) LG코치에 이어 프로야구 두번째로 ‘100승-150세이브’를 돌파한 투수가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 “톱10 가능하다”

단단하고 빠른 그립에 8°C를 넘지 못한 쌀쌀한 날씨에 돌개바람까지 불어대며 사상 최악의 난코스인 풀밭의 가운데 치러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가 선수들의 인내심 테스트 무대가 됐다.



대회 3일째

8오버 공동 19위...8위와 불과 2타차 3오버 우즈, 선두 애플비 1타차 추격

가했다. 우즈는 지금까지 최종 라운드에서 챔피언으로 경기에 나선 12차례 메이저대회에서 한번도 우승을 놓쳐 본 적이 없다. 또 마스터스에서는 1991년 대회부터 작년 까지 우승자는 늘 최종 라운드 챔피언에게서 배출됐다.

그러나 대회가 타수 줄이기 아닌 타수 지키기 경쟁으로 바뀌면서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그린재킷의 주인공은 모든 선수가 최종 라운드를 마쳐야 드러날 전망이다.

우즈도 이날 16번홀까지 2타를 즐기면서 단독 선두 부상을 바라봤으나 17, 18번홀에서 내리 보기로 돌아오는 바람에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우즈가 메이저대회에서 54승 동안 언더파 스코어를 한번도 내지 못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쫓고 강한 바람마저 불어대는 등 최악의 조건 속에서 치러진 3라운드에서 타수를 잃고도 순위가 올라간 선수들이 수도룩했다.

3라운드 평균타수는 77.35타까지 치솟아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이 그린을 벤트 그래스로 바꾼 198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언더파 스코어를 낸 선수는 래티프 구센(남아공·70타) 혼자였고 이븐과 72타를 친 선수도 우즈와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등 2명 밖에 없어 단 3명만 오버파 스코어를 피했을 뿐이다.

1오버파 73타를 친 애플비는 전날 8위에서 선두로 수직 상승했고 3오버파 75타를 때린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는 우즈와 함께 공동2위로 순위가 2계단 올랐다.

75타를 친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4타를 잃어버린 잭 존슨(미국), 그리고 77타로 부진했던 본 테일러(미국)가 애플비에 단 2타 뒤진 공동4위 그룹을 이뤘다.

73타로 ‘선전’한 필 미켈슨(미국)과 이날 70타를 때려 유일한 언더파를 기록한 구센도 선두와 4타차 공동8위(6오버파 222타)에 올라 역전 우승의 희망을 살려냈다.



호주의 애플비가 8일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마스터스대회 3라운드 7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37·나이키골프)도 당초 목표포 내 걸었던 ‘톱5’ 달성에 푸른 신호를 쳤다. 버디 3개와 보기 5개를 묶어 타수 손실이 2타에 그친 최경주는 공동19위(8오버파 224타)로

올라섰다. 공동8위 그룹을 불과 2타 차이로 추격하던 최경주는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과 안팎의 성적으로 버티면 5위 이내 진입이 가능하

다는 분석.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78타를 쳐 공동34위(11오버파 227타)로 내려 앉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